

# 알제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6.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 I. 일반개황

면적	2,382천 km <sup>2</sup>	G D P	1607.91억 달러 (2016)
인구	40.76백만 명 (2016)	1인당 GDP	3,944.82달러 (2016)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Algerian Dinar (DZD)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환율(달러당)	109.44 (2016)

-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제리는 한반도 면적의 10.8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4,076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리비아, 말리, 튀니지 등과 접경하고 있음.
- OPEC 회원국이자 가스수출국포럼(GECF) 가입국인 알제리는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아연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임.
- 2014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고 2017년 5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였으나 부테플리카의 건강에 대한 의심과 불투명한 후계구도, 지속된 불경기로 인한 대중의 불만으로 정치·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알제리는 자국의 석유·가스 산업에 진출해 있는 미국과 이슬람 극단주의 대처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주요 가스 수입국인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석유·가스 산업 및 테러대응 관련국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 석유산업이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좌우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산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의 저유가 추세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이 악화되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o</sup>	2017 <sup>f</sup>
경제성장률	2.8	3.8	3.8	4.2	1.4
재정수지 / GDP	-0.4	-7.3	-15.4	-11.6	-2.2
소비자물가상승률	3.3	2.9	4.8	6.4	4.8

자료: IMF.

#### □ 오일머니를 활용한 공공 투자로 최근 3년간 4%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 알제리의 석유산업은 GDP의 30%, 재정수입의 60%, 총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말부터 이어진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시기에 축적된 오일머니를 활용한 공공 투자로 2014~16년 4% 안팎의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였음.

- 알제리 정부는 인프라 개선, 비석유 부문 개발 등을 위해 2010~14년 5개년 개발계획을 시행(총 2,860억 달러 투입)하였으며, 2015~19년 5개년 개발 계획에 약 2,62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 2017년 경제성장률은 산유국 감산 합의 이행\*에 따른 원유생산 축소, 외환보유액 감소에 따른 공공투자 침체 및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2016년(4.2%) 대비 하락한 1.4%를 기록할 전망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알제리 에너지부는 알제리의 일당 원유 생산량을 50,000배럴까지 감축시키는 감산 합의를 온전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원유 증산계획이 없음을 밝힘.

#### □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지속

- 2013년 말 이후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유수출 수입(收入)감소, 높은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3년 (-0.4%)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15.4%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11.6%를 기록하였음.

- 2016년 알제리 정부는 인프라 부문 등 정부지출 축소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규모 감축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이는 인프라 부문 투자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위축을 염려한 것으로 보임.

- 알제리 당국은 지속적인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지출 축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라 더 공격적인 긴축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외환보유고 추이(억 달러): 1,924('13) → 1,774('14) → 1,426('15) → 1,168('16)

- 보조금 삭감이 유발할 수 있는 소요사태에 대한 우려로 2017년에도 사회복지 지출은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나, 원유가격 상승, 인프라 투자 등 정부지출 확대 제한, 세금징수 강화 등에 힘입어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11.6%)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2.2%를 기록할 전망이다.
- 알제리 정부는 공공 부문 임금삭감과 함께 연료, 전력 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유와 설탕 등 기초 식료품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계층 앞 직접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임.

## □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디나르화 약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로 인한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발생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디나르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의 대응을 위한 전기, 가스, 휘발유 가격 인상(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15년(4.8%) 보다 상승한 6.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16년<sup>e</sup> -26,313백만 달러 → '17년<sup>f</sup> -21,413백만 달러)에도 불구하고 주류세, 담배세 등 세금 인상, 식료품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4.8%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석유·가스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 정부의 산업 다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가스산업이 GDP의 30%, 재정수입의 60%, 총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임.

- 알제리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석유화학,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백색가전 제품 등 수출지향적인 산업 다각화를 장려하고 있으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7'에 따르면, 알제리의 기업환경 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156위에 불과

## 나.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알제리는 BP(British Petroleum) 자료 기준 2015년 말 122억 배럴의 원유 (세계 점유율 0.7%, 세계 17위, 아프리카 4위)와 4.5조 m<sup>3</sup>의 천연가스 (세계점유율 2.4%, 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 추정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며, 금, 철광석, 아연 등 기타 광물자원도 풍부함

- 알제리는 OPEC 회원국이자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회원국임.

\* GECF는 천연가스 생산국들의 모임으로 OPEC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이며, 2008년 러시아의 주도하에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음. GECF 가입국은 러시아, 이란 등 12개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산업 다각화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5개년 개발계획(2015~19년) 진행

- 알제리 정부는 석유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비석유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진흥 등이 포함된 국가개발 5개년 계획 (2010~2014년)을 시행하였으며, 동 계획의 추진에 2,86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차기 5개년 개발계획(2015~2019)이 약 2,620억 달러 예산규모로 진행 중이며, 이중 수자원 분야 178억 달러, 도로망 확충 부문에 550억 달러를 투입하고, 주택 부문에 이전(630억 달러)보다 많은 64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9년 까지 16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 주택, 물가상승, 일자리 등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요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으며, Sellal 국무총리는 주택난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밝힌 바 있음.
  - 수자원 부문에는 약 1만 km<sup>2</sup> 면적의 경작지 관개망 구축 사업, 해수담수화 플랜트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 12개 댐 건설 등이 포함되며, 5개 댐 연결을 통한 기존 수력발전소 확장과 식수도관 건설 사업 등도 진행될 계획임.
- ※ 단, 알제리 정부가 지속된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인프라 부문 지출을 지속 축소하고 있어 당초 계획(2,620억 달러)보다 적은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임.

#### □ 유가하락 대응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입 억제정책 실시

- 알제리 정부는 유가하락 대응을 위해 강력한 수입 억제정책과 함께 기존에 추진하던 외국인투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합작 투자, 기술이전 등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재화·용역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 프로젝트 관련 부동산에 대한 10년 면세 등이 반영된 투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관급 수의계약시 알제리 국내기업과 합작투자하는 현지 공장 건설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외국인이 현지에 건설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금지해 오던 내국인의 신용구입을 허용하고 있음.
- 아울러 수입액이 큰 자동차, 시멘트 등의 제품에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환관리 강화(L/C 개설 통제 등), 엄격한 수입 라이선스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처럼 알제리 정부는 투자여건 개선과 수입제한을 병행하면서 현지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수입쿼터를 강화해 2016년 8만 3,000대로 크게 삭감(2015년 35만 대)하고 금년에도 5만 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4년 11월 알제리에 첫 'Made in Algeria'인 Renault 자동차가 출시되었으며, Renault 자동차는 가장 많은 쿼터 배정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알제리 제조 모델 부가세 및 신차세 면제 등)를 제공받고 있음.
- 2016년부터 현대 자동차도 수입규제 회피와 현지생산 혜택을 위해 상용차 및 승용차 부문에서 현지 조립공장을 건설해 가동하고 있으며, Volkswagen, Iveco 등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알제리 현지 공장 발표도 이어지고 있음.

###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o</sup>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835	-9,436	-27,290	-26,313	-21,413
경 상 수 지 / G D P	0.4	-4.4	-16.5	-16.3	-12.3
상 품 수 지	9,945	352	-17,841	-20,370	-15,560
수 출	64,817	59,795	34,313	29,060	34,393
수 입	54,872	59,444	52,154	49,430	49,953
외 환 보 유 액	192,357	177,400	142,600	116,804	96,709
총 외 채 잔 액	5,208	5,444	4,729	5,846	9,518
총 외 채 잔 액 / G D P	2.5	2.6	2.8	3.5	5.3
D S R	0.7	0.4	1.1	1.0	1.2

자료: IMF, EIU, OECD.

#### □ 유가 하락으로 상품수지 악화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에 힘입은 풍부한 상품수지 흑자로 2013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원유수출액 감소로 2014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소득수지는 외국 기업들의 과실송금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지도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로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산유국 감산 합의에 힘입은 원유가격 상승 및 가스 수출 증가가 수출 수입(收入)을 회복시킬 것으로 보임. 국제 상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강한 무역규제\*, 통화 약세 등으로 인한 수입 축소로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16.3%) 대비 상당히 감소한 -12.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WTO 미가입국인 알제리는 T/T(전신환송금) 거래 비허용, 모든 L/C 거래의 중앙은행 통제, 완성차 수입 쿼터 축소 및 각종 인허가 서류 등으로 수입 장벽을 강화하고 있음.

#### □ 저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1,924억 달러에 달했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저유가 기조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2016년 말 기준 1,168억 달러까지 급감하였음.

#### □ 총외채 잔액 및 D.S.R은 안정적 수준 유지

-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총외채 규모는 2006년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 외채 조기상환 이후 GDP의 5%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5%(2015년 2.8%), D.S.R은 1.0%(2015년 1.1%)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상황

##### □ 집권 여당, 2017년 총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 유지

- 2017년 5월 4일에 시행된 총선에서 총 462석 가운데 여당인 민족해방전선(FLN)이 단일 정당 최다인 164석, FLN과 연정을 구성해온 민족민주동맹(RND)이 97석을 확보하여 친정부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게 되었음.

- 이번 총선 투표율은 2012년 43%보다 더 낮은 38.25%로 집계되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 높은 청년 실업률,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편임.



##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건강과 불명확한 후계구도 문제로 정치불안 지속 전망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14년 4번째 재선에 성공했으나 건강과 통치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80세인 부테플리카가 재직 중에 사망하면 헌법에 따라 Bensalah 상원의장이 임시 대통령이 되고 60일 이내 선거가 개최됨.
-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13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2017년 2월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면담을 취소한바 있음.
- 부테플리카의 건강과 불투명한 후계구도는 다양한 파벌간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악화된 경제상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정치적 불안요소로 남을 전망이다.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경기침체로 인한 불만 누적으로 소규모 시위가 지속되나 큰 혼란은 없을 전망

- World Bank 기준 2014년 25.2%에 달하는 높은 청년(15~24세) 실업률과 제한된 정치적 표현, 만연한 부패는 대규모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이며, 이로 인한 소규모 폭동과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1월 초부터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에 항의 하는 청년들의 분신자살이 수차례 발생하였으며, 이집트,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 영향으로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발전되었음.
- 하지만 보조금 확대, 공무원 임금인상 등 알제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성향으로 점차 진정되었으며 아직까지 대규모 시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
- 한편,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감축과 공공 부문 고용 동결 계획은 팽배한 불만을 가중시켜 대규모 시위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 그러나 여전히 낮은 유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일반 국민의 경제적 수요를 채워줄 재원은 부족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치안, 유명무실한 야당, 1990년대 내전에 대한 기억\* 및 시민자유에 대한 제한된 관심을 고려할 때 혁명적인 격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1991년 총선거를 전후로 알제리 정부와 여러 이슬람주의 반군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 약 15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됨.

### 3. 국제관계

#### □ 이슬람 극단주의 대응이 외교정책의 주요 관심

- 알제리 정부는 리비아와 말리의 치안을 악화시키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영향력이 알제리로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테러집단의 자금줄이 될 수 있는 밀수를 통제\*하고 말리와 리비아가 있는 남부 국경에 다수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알제리군은 테러집단의 자금줄인 밀수의 억제 없는 테러와의 전쟁은 무의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리비아, 말리 국경에서 밀수 용의자 65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 □ 석유·가스 산업과 관련된 EU·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 알제리의 주요 가스 수입국인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처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또한 미국 기업들이 알제리 내 석유·가스산업에 진출해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라 트럼프 정부와도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채 조기상환 실시

- 1994~95년 파리클럽에서 약 127억 달러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하였으나, 2000년대 고유가 기조로 외환사정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적극적인 채무상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06년 파리클럽 앞 80억 달러 조기상환, 런던클럽 앞 8억 달러 조기상환 등을 통해 외채규모가 GDP의 5%를 밑도는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어, 2016년 말 기준 GDP 대비 3.4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V. 종합 의견

- 알제리는 2013년 말부터 이어진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시기에 확보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인프라 투자로 4% 안팎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공공투자 제한 등에 따라 2017년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칠 전망이다.
-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발생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2016년 GDP 대비 -16.3%)와 이로 인한 디나르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을 이끌면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4%를 기록하였음.
- 지속적인 쌍둥이 적자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부문 등 정부지출 축소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높은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인해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1.6%를 기록하였음.
- 2017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게 되었으나, 2014년 4번째 재선에 성공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건강과 통치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불투명한 후계구도로 인해 정치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5%, D.S.R.(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1.0%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조사역 이기성(☎02-6255-5727)  
E-mail : [ks.lee@koreaexim.go.kr](mailto:ks.lee@koreaexim.go.kr)